

錦溪 黃俊良의 官歷과 牧民 活動*

구 완 회**

- I. 머리말
- II. 과거와 초기의 仕宦 활동
- III. 중앙의 증견 관료 시절
- IV. 하급 수령으로서의 활동
- V. 상급 수령으로서의 활동
- VI. '善治 수령'의 含意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 중기의 관료였던 황준량의 관료 경력을 검토하고 특히 지방 관 활동에 관하여 주목했다. 이를 위해 그의 문집인 『錦溪集』 외에 『退溪集』에 수록된 편지글 등을 활용하여 생애를 복원하고, 善治 守丞으로 명성이 남게 된 까닭에 관해 검토했다.

문과에 급제한 후 황준량은 사림파가 정계에 다시 등장하던 시기에 주로 성균관의 하위직을 전전하면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고향인 풍기는 주세붕이 처음으로 私學 교육기관인 서원을 세운 곳이고, 이황이 군수로 있으면서 서원을 발전시키던 곳이었다. 황준량은 정과를 초월하여 존경받던 이현로의 손녀사위로서 그를 매개로 주세붕이나 이황과 교류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세명대학교의 연구년 지원과제로 이루어진 것임.

**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kuwanhoe@gmail.com

황준량은 신녕 현감, 단양 군수, 성주 목사로서 수령직을 역임했다. 그 과정에 기민을 구제하고, 전임관의 부채를 해결하고, 학교를 진흥시키는 일을 잘 수행했다. 특히 단양 군수 때는 고을의 폐단을 국왕에게 간곡하게 상소하여 10년간의 세금을 면제받아 선치 수령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사림과가 관심을 가졌던 서원 교육에 힘쓰고, 성주 목사 시절에는 이황이 편찬한 『주자서절요』를 편찬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단양 군수 시절, 왕으로부터 면세의 혜택을 얻어낸 것은 대단한 일이었고, 단양 농민들의 삶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선치 수령이란 명성은 황준량의 행정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왕의 허락에서 온 것이었다. 당시 지방 행정수요의 상당 부분이 수취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황준량은 ‘한가한’ 단양 시절을 보내면서 선치 수령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결국, 선치 수령 황준량이라는 명성은 人治主義的인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제도보다는 개개인의 덕성과 능력에 따라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고, 황준량의 예는 그런 믿음을 강화하는 근거 중의 하나였다. 그런 면에서 선정을 기대하는 농민들에게 황준량은 오래도록 선치 수령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었다.

◆ 주제어

황준량, 수령, 금계집, 사림과, 주자서절요, 선치 수령

I. 머리말

錦溪 黃俊良(1517~1563)은 16세기를 살았던 관료이면서 성리학자이고, 문장가·시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의 시문학 세계와 퇴계 학맥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 반면에 47년의 생애 중 거의 절반을 관료로 살았는데도 그가 어떤 관료 생활을 했는지는 부수적으로만 언급되었다. 丹陽郡守 시절에 그가 올린 유명한 상소문을 들어 훌륭한 牧民官이었다는 평가는 넘치지만, 그의 삶에 관한 설명은 결국은 李滉(1501~1570)이 지은 「行狀」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¹⁾

황준량의 삶, 특히 관료로서의 삶에 관한 연구가 쉽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錦溪集』은 시문 중심으로 편집되었고, 「행장」은 그의 삶을 망라하지만 너무나 간략하다. 삶의 현장에서 작성된 자료들, 예컨대 서간문 자료도 절대 부족하다. 『금계집』에 반영되지 않은 황준량 관련 고문서도 현재로서는 빈약한 편이다.²⁾

따라서 황준량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할 부분은 자료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다. 『금계지』 편찬자는 서간문을 비롯한 많은 자료의 작성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 그가 남긴 시문을 비롯한 여러 문

-
- 1) 윤철근, 「황준량의 역사의식」, 『퇴계학』2, 1990; 유응순,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창설과 국문시가에 대한 방향 모색」, 『어문논집』35, 1996; 길진숙, 「주세붕의 『죽계지』 편찬과 시가관」, 『민족문화사연구』11, 1997; 최재남, 「금계 황준량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5, 2000; 김시황, 「금계 황준량 선생과 풍기지역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30, 2001; 최석기, 「황준량의 지이산기행시에 대하여」, 『동방한문학』47, 2011; 강구율, 「금계 황준량의 삶과 문학」, 『세거칠백년-영주의 평해황씨 사람들-』, 소수박물관, 2012; 김종석, 「금계 황준량의 사상과 퇴계학의 계승양상」, 『퇴계학보』136, 2014; 이종호, 「백운동 학풍을 이어 은혜를 베풀고 교육을 진흥한 목민관」(『錦溪集』해제), 『(국역)금계집』1,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2014; 정시열, 「금계 황준량의 산문 시탐」, 『한민족문화연구』55, 2016; 권석창, 「황준량의 옥양서원 출향과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배경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40-1, 2017.
 - 2) 『금계집』에 없는 황준량 관련 자료로는 『錦溪先生辨誣錄』이 대표적이다. 이 자료에 관한 연구는 위 권석창의 연구 참조. 문중에 전하는 황준량과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로는 생원 입격 때 받은 白牌, 문과 급제 때 받은 紅牌 뿐이다.

장이 어느 시점에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황준량의 삶을 복원해야 한다. 최근에 이뤄진 『금계집』 국역은 이러한 작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³⁾

아울러 문집류에 남아 있는 황준량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退溪集』에는 이황이 황준량에게 보낸 편지가 60여 편이나 실려있다. 『금계집』에 황준량이 이황에게 보낸 편지가 15편 정도밖에 전하지 않는 것에 견주어 볼 때 이는 대단히 많은 양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 부분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금계집』에 실린 편지를 『퇴계집』의 편지들과 서로 비교하면 작성 시점을 추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의 삶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 그밖에도 『退溪先生文集攷證』·『鶴巖集』 등 다른 이들이 남긴 문집류들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황준량의 삶을 역사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정 부분 역사적 환경과 동떨어진 ‘위인’으로만 설명한 측면이 없지 않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단양 군수를 거친 이황과 황준량 중 누가 더 나은 수령이었는데에 관한 소박한 논란은⁴⁾ 그런 점에서 인상적이다. ‘선치 수령’에 관한 상투적인 顯彰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 기본 자료에 관한 새로운 해석, 새로 발굴한 자료들을 통해 황준량의 삶을 더 분명하게 구명하는 일, 그리고 그간 축적된 역사학계의 성과들을 활용하여 황준량의 삶을 다시 해석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이를 통해 황준량에 관한 이해를 넘어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없는 다행이겠다.

II. 과거와 초기의 仕宦 활동

과거는 조선 시기의 사족이 관료가 되기 위해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

3) 강성위·김상환 역, 『(국역)금계집』,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2014.

4) 『退溪言行錄』 권3, 「居官」.

豐基의 文翰이 있는 평해 황씨 집안에서 태어난 황준량은 어려서 외조부 黃漢彌로부터 글을 익혔다.⁵⁾ 일찍부터 탁월한 글재주를 보였고, 18세에 南省, 즉 禮曹에 나아가 策文으로 명성을 얻었다.⁶⁾ 이는 진사시의 鄉試에 합격한 뒤 예조에서 주관하는 覆試까지 나아갔던 것을 말한다. 이때 황준량은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책문으로 심사관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다. 이후 소과에 입격한 것은 3년 뒤, 중종 32년(1537) 가을에 실시한 생원시에서였다.⁷⁾ 결국 황준량은 일찍부터 經學과 製述에 뛰어난 재능을 드러냈던 셈이다. 이후 황준량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성균관에서 수학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중앙 정계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金安老(1481~1537)가 실각한 뒤 오랫동안 침체하였던 사림파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이어 등장하였다. 한때 『小學』 보급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다가 기묘사화 때 파직되어 20년 가까이 은거하던 金安國(1478~1543)이 정계에 복귀하였고,⁸⁾ 李滉과 성리학 논쟁을 벌이면서 20대에 이미 두각을 드러냈던 李彥迪(1491~1553)도 7년 가까운 공백기를 깨고 정계에 복귀하였다.⁹⁾ 따라서 이 시기는 훈구적인 기반을 지닌 원로들과 차별화된 성리학적 이상주의가 다시 주목되던 때였다.

성균관에서 수학하던 젊은 유생들도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비록 성균관의 고위직은 아직 훈구 계열이 독차지하고 있었지만,¹⁰⁾ 유생들은 진보적인 새 물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황준량과 함께 공

5) 황한필(1456~1545)은 순흥에 세거하던 창원 황씨 大相公派 인물로 목천 교수를 역임했다. 동생인 黃漢忠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문풍을 진작시켰다고 한다. 『竹溪志』, 잡록후, 「豐基俗尙記」. 백운동서원의 창건 과정에서 큰 구실을 한 黃彬은 황한충의 아들이다.

6) 『금계집(외집)』 권9, 부록, 「行狀」. 이하 황준량의 이력에 관하여 「행장」을 따른 것은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

7) 황준량의 백패에는 ‘生員三等第六十七人入格者’라고 하고 ‘嘉靖 十六年八月日’에 발급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8) 『중종실록』 권86, 32년 12월 경신(15일).

9) 『중종실록』 권86, 32년 11월 을미(20일).

10) 성균관 대사성에 宋麟壽(1499~1547)가 취임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것은 이로 부터 4년 뒤의 일이다.

부했을 생원 同年인 인물로 『금계집』에 나오는 柳景深(1516~1571)·洪仁祐(1515~1554)·韓脩·徐克一·高孟英(1502~1565) 등은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 있었다. 문집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眉巖日記』로 유명한 柳希春(1513~1577), 趙光祖의 伸冤 운동에 앞장섰던 康惟善(1520~1549) 등도 모두 그의 생원 동년이다. 이들과 어울리면서 황준량은 예비 관료로서 꿈을 키웠다.

황준량이 문과에 급제한 것은 성균관에서 공부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중종 35년(1540)에 시행된 式年試에서 그는 ‘乙科 제2인’이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중앙 정계에 등장하였다.¹¹⁾ 그때 나이 24세였으니 이른바 ‘少年登科’였다.¹²⁾

문과에 급제한 뒤, 황준량은 實職에 나아가기 전에 대개의 급제자가 그랬듯이 성균관에 分館되어 수습 관료로 시작했다. 분관 과정에서 급제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곳이 承文院이었지만 그리로 분관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황준량은 그가 얻은 좋은 성적에 비하여 평범한 첫 출발을 한 셈이다.¹³⁾ 처음 맡았던 직책은 權知 成均館學諭였으며, 이후 잠시 星州牧의 訓導(종9품)로 나갔다가 성균관 학유, 學錄(정9품) 겸 養賢庫 奉事(종8품), 學正(정8품) 등 성균관의 낮은 관직을 거쳤다. 이언적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등장하고, 이항이 경연관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황준량이 관료로 출발할 무렵, 지방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황준량의 고향인 풍기에 부임한 군수 周世鵬(1495~1554)이 白雲洞書院을 설립하면서, 성리학의 연원을 증시하는 새로운 교육 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官學인

11) 황준량의 홍패에는 ‘嘉靖十九年四月初一日’에 발급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12) 동년의 방목에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한 결과, 소과 입격자의 평균 나이는 26.5세였는데, 22세였던 황준량은 19세였던 康惟善을 제외하면 가장 어린 나이였고, 문과 급제자의 평균 나이는 32.1세로서 24세인 황준량은 朴承任과 더불어 최연소자였다. 『司馬榜目』·『國朝文科榜目』 참조.

13) 급제자는 대개는 승문원·성균관·교서관의 三館에 분관된다. 승문원에 분관되는 것을 선호했고, 교서관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明齋遺稿』 권36, 묘지명, 「左副承旨沈公墓誌銘」.

鄉校가 있는데도 새로운 교육 기관을 추가로 설치한 것인데, 황준량의 외가인 창원 황씨 문중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¹⁴⁾ 그것은 단지 한 고을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경상도 관찰사로 내려온 이언적을 비롯한 고위층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황준량은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접촉하고 있었다. 그는 백운동서원의 설립에서 보듯이 성리학적 이념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한 교육 운동에 나섰던 주세붕, 이언적에 이어 성리학의 철학적 이론에 천착하며 사림의 지도자로 존경받던 이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준량과 주세붕·이황을 이어주는 중간에 있었던 처조부 李賢輔(1467~1555)의 덕이었다.¹⁵⁾ 이현보는 ‘네 조정에 걸쳐 벼슬하고 여덟 고을의 수령을 역임한’ 인물이었지만,¹⁶⁾ 현실을 개혁하려고 달려나가다가 화를 입은 급진 사림과와 달리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일정하게 포기하고 자연으로 물러서는 넉넉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인물이다.¹⁷⁾ 따라서 거의 정파를 초월하여 원로로 존경받았는데,¹⁸⁾ 이황의 거처와 멀지 않은 예안의 汾江에 머물며 89세에 이르도록 유유자적하며 오래도록 황준량의 넉넉한 병풍이 되어 주었다.

14) 당시 풍기의 사족들은 대부분 서원의 건립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창원 황씨 문중의 黃彬이 참여했다. 윤희면, 「백운동서원의 설립과 풍기사림」, 『진단학보』49, 1980.

15) 학정으로 재직하던 중인 중종 39년 4월, 황준량은 汾江으로 처조부인 이현보를 찾았다. 마침 예안 현감 任鼎臣(1512~1588)이 들러 함께 뱃놀이하고 술을 마신 후 춤을 추며 즐겼으며, 이현보는 「醉時歌」를 읊었다. 뒤에 주세붕은 분강의 놀이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취시가」에 차운하였는데, 이현보와 함께 어울리던 이들을 신선에 비꼈다. 당시 이현보의 나이는 78세였다. 『龔巖先生年譜』 권1, 「年譜」, 가정 23년 4월조; 『금계집(내집)』 권1, 詩, 「簞巖石上」·「次龔巖相公醉時歌」.

16) 『금계집(외집)』 권7, 「代龔巖李相公謝加階崇政復加食物箋」.

17) 김기주, 「초기 사림과의 좌절과 퇴계학」, 『양명학』23, 2009. 김기주는 퇴계학의 형성 배경으로 성리학의 규범을 실천하기보다는 자연으로 물러서는 태도를 지녔던 이현보가 남겨준 문화적 토대와 철학적 이론체계를 추구했던 이언적의 지적인 탐구, 성리학적 이념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한 주세붕의 노력을 들었다. 이런 시각은 황준량의 경우에도 응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18) 중종 말년에 훈척 관료인 홍언필이 예안에 머물던 이현보를 불러들이자고 건의한 일이 있었다. 당시 그의 나이 79세였다. 『중종실록』 권104, 39년 8월 을유(19일).

황준량은 주세붕과 주역을 함께 읽었으며,¹⁹⁾ 주세붕이 편찬한 백운동서원 관련 자료집인 『竹溪志』를 두고 서로 거리낌 없이 다른 의견을 주고받았다.²⁰⁾ 황준량은 공신 계열의 배경을 지닌 주세붕²¹⁾과 다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학적 감성을 통하여 공감하고, 밀접히 교류했다.

성균관의 하위직을 진전하던 황준량은 29세 때 처음으로 파직을 경험했다.²²⁾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근무 성적이 좋지 않다는 평가 때문이었다.²³⁾ 한강을 거슬러 뱃길로 귀향하였고, 예안의 이현보를 찾은 후, 지리산 유람을 떠났다. 이때 읊은 「遊頭流山紀行篇」은 기본적으로 신선 취향[仙趣]이 강하게 나타나지만,²⁴⁾ ‘俗學’에 빠진 것을 탄식하고 ‘泗水’의 근원을 탐구하고 ‘關閩’의 기풍을 받겠다는, 즉 성리학에 매진하고 싶은 희망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²⁵⁾

얼마 지나지 않아 황준량은 尙州 教授[종6품]에 임명되어 주세붕과 함께 상경했다. 본래 훈도나 교수의 직은 외방의 군현에 ‘興學’을 위하여 설치한 관직이다. 이들 관직은 無祿官으로서 상주처럼 큰 고을에는 문관을 교수로 임명했다.²⁶⁾ 문관으로 파직된 이를 교수로 좌천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²⁷⁾ 황준량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 듯하다. 황준량은 교수직을 거치면서 이력을 쌓아 동반의 祿官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다.²⁸⁾

19) 『武陵雜稿附錄』 권2, 연보, 「愼齋先生年譜」, 가정 23년 4월.

20) 황준량은 주세붕이 주도한 『죽계지』의 편찬 방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논란했다. 『武陵雜稿』(별집), 권5, 書, 「答黃學正仲舉」.

21) 정만조, 「조선서원의 성립과정」, 『한국사론』8, 1980.

22) ‘을사년 여름에 罷官하여 내려온’ 사실은 황준량이 남긴 시제 뒤에 명시되었다. 『금계집(외집)』 권2, 시, 「廣津泝舟還鄉」.

23) 연보에서 이 부분은 ‘以承文院殿考 出爲尙州教’라 하였는데, 성균관에서 일하던 황준량이 왜 승문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殿考’를 마치 관직명처럼 이해하였는데, ‘殿考’란 정기적인 평가를 말한다.

24) 최석기, 「황준량의 지이산기행시에 대하여」, 『동방한문학』47, 2011.

25) 『금계집(외집)』 권1, 시, 「遊頭流山紀行篇」.

26) 『經國大典』 권1, 이진, 外官職. 牧 이상은 문신, 도호부는 생원·진사 중에서 임명했다.

27) 『중종실록』 권27, 11년 12월 경신(14일).

28) 『중종실록』 권22, 10년 윤4월 신사(24일).

경상도에서 제일가는 상주에서의 교수 생활에 관한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상주 교수로 근무하던 시절, ‘상주의 유생들이 백운동서원에 머물며 공부하도록 시설을 마련하라.’는 경상도 관찰사 安琰의 특별 지시로 서원 쪽과 논의한 일이 있었다.²⁹⁾ 아마 상주가 경상도의 首邑이었기에 특별히 조치한 것일 것이다. 그해 연말 관찰사가 백운동서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침을 담은 ‘書院斯文立議’를 서원에 전할 때도 상주 교수인 황준량을 차사원으로 차출하였다.³⁰⁾

그러나 교수직은 비교적 자유로운 직책이었다. 직접적인 상급자가 현지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인 명종 1년(1546) 3월에는 속리산, 8월에 가야산을 유람하고, 9월에 청량산을 유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여유로운 근무환경 덕택이었다.³¹⁾

상주 교수로서 2년 동안의 근무를 마치고 황준량은 잠시의 공백기를 가졌다.³²⁾ 그러나 곧 성균관 博士(정7품)를 거쳐 얼마 후 성균관 典籍(정6품)으로 승진했다. 처음으로 參上官이 된 것이다.³³⁾ 중앙 정계에서는 을사사화와 良才驛壁書 사건의 여파로 사림파가 큰 피해를 보았으나, 지방에 근무하다가 막 복귀한 하급 실무 관료인 황준량까지 화가 미치지지는 않았다.

29) 『紹修書院謄錄』, 「白雲洞書院加造成及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行移謄錄」, 가정 25년 5월 21일, 在陝川. 이 자료에서는 ‘상주 훈도’라고 한 것은 ‘상주 교수’의 착오임.

30) 이때 관찰사 안현, 전 사간 黃孝恭, 도사 鄭浚, 군수 柳敬長, 전 정랑 安公信, 차사원 황준량이 함께했다. 『紹修書院謄錄』,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 가정 26년 2월 3일.

31) 『금계집(내집)』 권1, 시, 「俗離山法住寺」(丙午 春三月)·「福泉寺」·「伽椰山次金慕齋韻」(丙午 秋八月).

32) 『금계집(외집)』 권3, 시, 「聘母李氏挽」(丁未 孟秋). 이 시에서는 ‘머슴을 그만두고’ 장례에 참여하여 상여를 잡았다고 묘사했다.

33) 물론 6품의 관직에 이르기 전에 6품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황준량의 품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우선 6품직에 오르면서 陞六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Ⅲ. 중앙의 중견 관료 시절

전적으로 승진하면서 참서관이 된 황준량은 얼마 뒤에 六曹의 낭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32세 때인 명종 3년(1548)의 일이었다. 그가 처음 맡은 관직은 工曹佐郎(정6품)이었다. 당시 관료들은 승진 과정에 으레 詞訟·錢穀을 다루는 부서를 일정 기간 거쳤는데, 육조 중에서는 戶曹·刑曹·공조가 그런 곳이었다. 그래야만 治民의 현장인 수령직으로 나갈 수 있었고, 외직을 거쳐야만 중앙의 고위관직으로도 나아갈 수 있었다. 황준량은 이미 양현고의 봉사로서 재물을 관리해 본 적이 있었지만 공조에서 다시 그러한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황준량은 공조좌랑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가 부친상을 당하여 품기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 슬픈 시기였지만, 번거로운 업무를 떠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기였다. 성리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계기도 이 무렵 마련된 듯하다. 서른두 살 때의 일이었다.

마침 이황이 황준량의 고향인 풍기에 군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백운동서원에서 강학하는 등 서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학풍을 확산하고 있었다.³⁴⁾ 백운동서원을 ‘紹修書院’이라는 賜額書院으로 발돋움하게 한 것도 이황이었다. 이황은 이현보를 선배로 존경했고, 황준량의 丈人인李文樾(1498~1581)·李仲樾(1504~1582) 형제는 이황의 벗이기도 했기에 진작부터 알고 지내던 터였다.³⁵⁾ 상중이던 황준량이 직접 서원에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이황에게서 ‘朱書’를 빌려 읽으면서 새로운 학문의 경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듯하다.³⁶⁾

34) 『퇴계선생연보』 권1, 「연보」, 가정 28년 12월.

35) 『退溪集』 권48, 행장, 「星州牧使黃公行狀」; 『금계집(외집)』 권9, 부록, 「行狀」(5쪽 하). 여기서 이황은 황준량을 ‘(이현보) 선생의 문하에서 공을 처음 알았고, 서로 사귄 것이 가장 오래고 가까웠다[浼初識公於先生之門 相與游從 最久且密].’라고 회고했다. 또한 이현보의 아들 이증량과 이황은 함께 문과에 급제한 同年이기도 했다. 『농암선생연보』 권1, 연보, 가정 13년 2월.

36)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舉(歸計未遂)」. 이 편지에서 이황은 황준량이 빌려간 ‘주

이 무렵 서울에서는 李洪胤의 獄事가 일어나 수많은 선비가 화를 입었다. 그중에는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했던 생원 동년인 강유선도 있었다. 황준량은 별 매력도 없어 보이는 관직에 복귀하는 것 말고 학문의 길로 나아가는 문제로 고심했다. 마침 그가 존경하는 이황이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파직된 후 陶山으로 낙향하여 학문에만 전념하기로 작정한 직후였다.³⁷⁾ 황준량은 이황을 부러워하며 ‘行藏을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읊었다.³⁸⁾

삼년상을 마칠 무렵 황준량은 도산으로 직접 이황을 찾았다.³⁹⁾ 거취를 둘러싼 그의 고민에 대한 이황의 답은 얼마 뒤에 편지로 전해졌다. 성균관의 말단 관리로 안 돌아가도 그만이지만, 함부로 물러서면 남으로부터 ‘벼슬을 가려가면서 나아가고 물러선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니 장차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⁴⁰⁾ 의견과 함께 만일 몇 년간이라도 착실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보람과 성취가 엄청날 것이라는 조언이었다.⁴¹⁾

결국, 황준량은 다시 벼슬길로 들어섰다. 명종 5년(1550), 중앙 관직으로 복귀한 황준량은 전적을 거쳐 호조좌랑(정6품)으로 옮기면서 春秋館記事官을 겸하게 되었다. 『중종실록』·『인종실록』을 편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문장에 뛰어난 그가 발탁된 것이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병조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견 관료인 兵曹佐郎으로 옮겼으니 황준량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관직을 얻은 셈이다.

이때 황준량은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명종 즉위 뒤, 文定王后가 섭정하면서 普雨를 중용하며 불교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드디어는 ‘승려들

서’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퇴계집』에는 ‘答黃仲舉’라는 제목의 편지처럼 같은 제목의 편지가 여러 편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편지 제목 뒤의 괄호 안에 편지글의 첫머리를 표시하기로 한다.

37) 『퇴계집』 권1, 시, 「退溪草屋」.

38) 『금계집(외집)』 권2, 「次李退溪遊月瀾菴見寄之作」·「又次李退溪韻」.

39) 『퇴계집』 권1, 시, 「退溪草屋 喜黃錦溪來訪」(庚戌).

40) 『퇴계집』 권20, 서, 「答黃仲舉(曾因梧老·馳想懸懸)」.

41) 『퇴계집』 권20, 서, 「答黃仲舉(馳想懸懸)」.

이 마구 늘어나서 軍額이 부족하게 되니 이를 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으로 禪宗·敎宗 兩宗을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言官들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며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성균관의 유생들까지 연명하여 합세하는 상황이었다. 병조좌랑이던 황준량도 이러한 물결에 동참했다.⁴²⁾

이듬해인 명종 6년(1551) 2월, 황준량은 경상도 監軍御史에 임명되었다. 당시 바닷가에 설치한 軍鎮의 僉使·萬戶 등 鎮將들이 水軍들을 침학하는 폐단이 많았으므로 수군이 많은 경상·전라도에 젊은 문관을 보내어 6개월씩 순행하도록 한 것이다.⁴³⁾ 감군어사가 현지의 수령이나 장수들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조치를 실행하자마자 첨사·만호 등이 兩道에 취임하는 것을 싫어할 정도의 견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⁴⁴⁾

황준량이 경상도 감군어사로서 어떻게 활동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로에 지은 수십 편의 시를 통해 대강의 활동을 그려볼 수는 있다. 역마를 타고 끊임없이 이동하고⁴⁵⁾ 더러는 섬 지방에 설치한 군진까지 다니면서 수군들의 상황을 살폈다. 그러나 대부분 시는 풍광을 노래하고 감회를 읊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熊川을 방문했을 때 전투 방비가 허술한 것을 다룬 시 ‘次鎮東樓’가 감군과 관련한 주제를 다룬 드문 작품이다.⁴⁶⁾

登樓把酒倚華筵	누대에 올라 술잔 잡고 꽃방석에 기댔어도
落日熊津恨杳然	해 지는 웅천의 한은 아득하기만 하구나
軹道降王曾獻地	軹道에서 항복했던 秦王은 땅을 바쳤는데
海邦夷醜謾欺天	삼나라 오랑캐들은 함부로 하늘을 속인다네

42) 『금계집(내집)』, 권4, 雜著, 「請革兩宗疏」.

43) 『명종실록』 권10, 5년 7월 임자(21일).

44) 『명종실록』 권11, 6년 2월 임오(24일).

45) 『금계집(외집)』 권4, 시, 「次浮翠樓」.

46) 『금계집(외집)』 권4, 시, 「次鎮東樓」.

乾坤百戰山河裏	이 나라 산하에서 전투는 무수했어도
桑柘千村雨露邊	크고 작은 마을까지 임금의 은택이 미쳤나 보다
將士眠春關不鎖	군사들은 춘곤증에 관문 단속도 하지 않고
閒拋兵艦作漁船	병선을 내버려두고 고기잡이 배로 만들었네

그럼에도 감군어사 시절의 경험은 훗날 황준량이 관료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은 물 같아서 바짝 말라죽을 지경인데 / 세상 일은 구름 같아 변덕 부리기 좋아하네[民生猶水濱枯涸 世事如雲喜變更],⁴⁷⁾ ‘유랑민이 들판에 가득해도 위에 알리는 이 없으니 / 세월을 원망하는 애통한 소리가 구천에 닿네[流民遍野無圖進 罪歲哀聲徹九霄]⁴⁸⁾’라는 시구처럼 민생에 관한 이해가 깊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참상을 ‘위에 알리는’ 일도 당연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감군어사로서의 업무 수행은 사송을 포함한 행정 실무에 익숙해지는 기회도 되었을 것이다.

중앙으로 복귀하면서 황준량이 받은 관직은 승문원 校檢(정6품)이다.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부서였고, 문장에 뛰어났던 황준량에게는 어울리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뒤로 황준량은 한두 달 사이에 抽牒御史(6월), 예조좌랑[정6품, 7월], 사헌부 지평[정5품, 9월] 등 문신 관료들이 거치는 관직을 차례로 받게 되었다. 예조에 있을 때는 『東國通鑑綱目』을 편찬하지는 건의를 올렸다.⁴⁹⁾

사헌부 지평은 관리들을 규찰하며 왕에게 직언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그러나 황준량은 대간으로서 활약할 기회를 거의 누리지 못했다. 사간원에서 ‘성품이 차분하지 않고 좋지 않은 여론[物論]이 있다.’라고 하고, ‘新進의 조급한 승진은 폐를 만든다.’라면서 교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⁵⁰⁾ 뒷날, 이황은 이를 두고 일찍이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밋게 본 韓氏 성을 가진 언관의 모함 때문이었다면서 안타까워했다.⁵¹⁾

47) 『금계집(외집)』 권4, 시, 「次退溪韻」.

48) 『금계집(외집)』 권4, 시, 「早甚聞諸壇祈雨有感」.

49) 『금계집(외집)』 권7, 箋, 「禮曹請撰東國通鑑綱目箋」.

50) 『명종실록』 권12, 6년 9월 계축(28일), 24쪽 하.

IV. 하급 수령으로서의 활동⁵²⁾ - 신녕 현감·단양 군수 시절 -

중앙 정계에서 벽에 부딪친 황준량은 乞郡하여 新寧縣監에 나아갔다.⁵³⁾ 결군이란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고을살이를 구하는 것으로서 엘리트 문신 관료들에게만 허용되었던 특전이였다. 이는 성리학적 가족 윤리에 바탕을 둔 군신관계·통치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로서, 사림과가 정계에 등장하면서 활기를 띠고 운영되었다. 결군할 경우, 대개는 고향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의 수령직을 받을 수 있었다. 京職에 비하여 수입이 좋은 수령직은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이었고, ‘효’를 실천하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했다.⁵⁴⁾

수령의 임무는 흔히 ‘守令七事’로 규정된다. 농업을 진흥하고[農桑盛], 호구를 늘리며[戶口增], 학교를 일으키고[學校興], 군정을 정비하고[軍政修], 부역을 고르게 하고[賦役均], 사송을 간결하게[詞訟簡], 못된 고질적 행태들을 그치게 하는[奸猾息] 일이었다.⁵⁵⁾ 이를 거칠게 요약하면 농민들로부터 부세를 잘 거두어들이고, 농민들의 재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교적 교화를 베풀어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행장」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황준량은 신녕에서 4년 정도 수령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⁵⁶⁾ 그곳에서 그가 베푼 다스림과 관련하여 세 가지가 전

51) 『금계집(외집)』 권9, 부록, 「行狀」, 2쪽 상; 『금계집(외집)』 권9, 부록, 「(李滉)祭文」. 이 언관은 이 무렵 사간원 헌납이었던 韓智源을 가리키는 듯하다. 사관은 한지워이 李無疆·陳復昌·元虎變·羅允明 등과 함께 李芑를 추종하는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명종실록』 권11, 6년 4월 기사(17일), 42쪽 하.

52) 현감·현령·군수는 하급 수령, 부사 이상은 상급 수령으로 보았다. 고을에서는 상급·하급 수령을 각각 ‘案前’·‘使道’라고 일컬었다. 『儒胥必知』, 所志類, 「牧府使都吏輩受由所志」.

53) 『금계집(외집)』 권9, 부록, 「行狀」, 2쪽 상.

54) 구완회, 「조선전기의 ‘귀양’과 ‘결군」, 『이수건교수정년기념한국중세사논총』, 2000.

55) 『經國大典』 권1, 吏典, 「考課」.

56) 황준량이 신녕 현감에 재직했던 기간을 정확히 하기 가능하기는 어렵다. 지평에 제수되었다가 체직된 후 결군하였고, 명종 11년 겨울에 병으로 사직하였다 하여 마치 5년

한다. 하나는 飢民을 잘 구휼한 일, 전임관 시절의 부채[前政逋負]를 해결한 일, 학교를 일으킨 일 등이 그것이다.⁵⁷⁾

농민의 생산 기반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관의 진휼은 필수적이었다. 가뭄이나 홍수의 재해를 입은 해에는 연말부터 보릿고개에 이르기까지 열흘 간격으로 진휼곡을 나눠주는 일이 중요했다. 황준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휼 행정을 펼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곡물과 소금·미역 등을 나눠주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다.⁵⁸⁾ 때마침 남쪽에서 왜변이 일어났으나 신령에서 어떻게 대비했는지에 관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전임 수령 시절에 남긴 부채를 청산하는 일은 일종의 미담으로 전하는 부분이다. 전임 수령들의 부채가 밀리고 밀리다가 낭패스럽게 되는 일이 많았는데, 책임을 구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임자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요령껏 해결하는 것이 통시대적인 미덕으로 여겨졌다. 황준량이 심정적으로 크게 의지했던 이현보도 그랬고, 수백 년 뒤의 丁若鏞도 그랬다.⁵⁹⁾

황준량이 학교를 일으키는 일과 관련해서는 향교를 수축하고 白鶴山書院을 창설한 일이 주목된다. 이 서원은 ‘백학산’이라는 산 이름이 우연히 남송의 성리학자인 魏了翁(1178~1237)이 은거했던 곳과 이름이 같은 것에 착안하여 강학의 공간을 마련하고 전답을 장만하여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⁶⁰⁾ 이는 先賢을 모시는, 제사 기능이 강화된 흔히 말하는 서원은 아니

이상 재직한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5년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직한 것은 확실하고, 단양 군수에 부임할 때 ‘벼슬을 그만둔 지 3년만’이라고 했으니 1555년에 이미 신녕 현감을 그만둔 듯하다. 『금계집(외집)』 권5, 시, 「宿守山驛聞迎人角聲獻云」. 한편 황준량은 이황이 1556년 정초에 보낸 시(『퇴계집』 권2, 시, 「次黃仲舉元日韻」(丙辰)에 차운한 시에서 ‘산속의 書齋’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학문의 길로 나아가갈 것인지를 고민했던 상황을 읊었다. 『금계집(내집)』 권1, 시, 「次退溪元日見寄之作」. 부임 시기는 신녕에 부임한 후 손님 접대 문제를 걱정한 이황의 편지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명종 7년 봄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舉(山間)」.

57) 『금계집(외집)』 권9, 부록, 「행장」, 2쪽 하.

58) 선조 때 황해도 감사였던 裴三益이 남긴 진휼 자료인 『賑濟場就食數』 참조. 신녕의 경우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9) 『농암집』 권4, 부록, 「행장」 기축년; 『牧民心書』 호전옥조, 「穀簿」.

나, 당시의 서원은 伊山書院의 경우처럼 반드시 祠廟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⁶¹⁾

그밖에 신녕 시절 황준량의 활동으로는 새로운 樓亭인 ‘竹閣’을 새로 세운 것도 추가할 수 있다.⁶²⁾ 누정이란 지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재지사족들의 활동 공간이었다. 따라서 누정의 건립은 백학산서원의 창설과 더불어 재지사족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교통로에 위치하여 끊임없이 오가는 使客을 접대하는 것도 수령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⁶³⁾ 그 과정에 황준량은 이황을 통하여 주세붕·林億齡(1496~1568)·趙士秀(1502~1558)·金彦珩(1503~1584) 등과 자주 酬唱하면서 교류했다.⁶⁴⁾

결국, 황준량의 활동은 아래로는 농민층, 위로는 재지사족, 전임 수령과 아전들을 두루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신녕 현감 황준량에 대한 호평은 이런 가운데 형성될 수 있었다. 다만, 황준량은 고을을 드나드는 손님들 때문에 공부할 겨를이 없어 고민이라고 꾸짖었다. 이황의 편지에 전하는 사연이 이를 말한다.

보내주신 편지에 자못 응접하는 것 때문에 소란한 것이 한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을살이하는 이들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그러나 공처럼 앞날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은 일에 싫증 내면 안 됩니다. 다만 매일 점검하고 순수한 본마음이 우뚝 중심을 잡도록 한다면 백성 다스리는 일이 어찌 우리가 하는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정녕 늙고 병든 나같은 사람이 일을 싫증내어 한가하기를 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부득이하면 끝내는 달이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⁶⁵⁾

60) 『금계집(외집)』 권1, 시, 「白鶴山書院」(2편).

61) 『퇴계집』 권42, 기, 「伊山書院記」.

62) 『퇴계집』 권2, 시, 「次韻 寄題黃仲學新構竹閣」.

63)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學(山間)」(임자).

64) 『퇴계집』 권19, 서, 「與黃仲學(酬唱往復)」.

65)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學(山間)」(임자).

이황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황준량에게 ‘모친을 봉양하는 것을 갑자기 그만 둘 수는 없겠다.’라면서 함께 안타까워했다.⁶⁶⁾ 결국 황준량은 신병을 이유로 신녕 현감을 사직하고 풍기로 귀향했다. 이황은 고향으로 돌아간 황준량에게 紹修書院(옛 백운동서원)이 유생들의 맹후로 시끄러운 것을 걱정하며 풍기에서 여론을 주도해 주기를 기대했다. 이때 황준량은 서원의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듯하다.⁶⁷⁾

그러나 조정에서는 황준량이 文翰의 관직, 즉 弘文館員의 물망에 오르고 있었다. 弘文錄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⁶⁸⁾ 최고의 엘리트들이 거치는 홍문관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문신 관료로서 출세를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함께 진출한 이들이 미워하여 이간’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못했다.⁶⁹⁾

문한의 요직으로 나아가가지 못한 황준량은 이듬해인 명종 12년(1557) 초에 단양 군수에 제수되었다. 향리에 머물던 그는 다시 벼슬길에 나서서 6년 만에 서울로 향하였다. 죽령(2.7)-청풍 수산역(2.8)-충주 달천(2.9)-충주 용안역(2.10)-죽산(2.11)-광주 판교원(2.12)을 거쳐 도성에 나아갔고, 수령직에 나아가기 전에 거쳐야 할 辭朝의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2월 28일이었다.⁷⁰⁾ 다시 단양을 향하여 남으로 발길을 돌렸으니 신원(2.28)-양지(2.29)-청풍 수산역-음죽 무극(3.1)-충주(3.2)를 거쳐 단양읍(3.10)에 이르렀다.⁷¹⁾

66)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舉(頃在山)」.

67) 이때 순흥의 원로요, 백운동서원 창설 이래 13년간 원장을 역임한 金仲文이 유생들의 배척을 받아 盟休 사태가 벌어졌다. 이때 이황은 김중문을 ‘무지한 사람[無知之人]’이라고 지목했다. 『퇴계선생속집』 권4, 서, 「答黃仲舉(自道谷傳示寄書)」(병진); 『퇴계집』 권12, 서,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가정 35년 12월 1일)·「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가정 36년 2월 16일).

68) 『명종실록』 권25, 14년 2월 8일(경술).

69) 『금계집(외집)』 권9, 부록, 「행장」, 4쪽 하.

70) 『금계집(외집)』 권5, 시, 「丁巳二月初七又躡竹嶺」·「初八日自水山過黃江」·「初九日渡澗川」·「次用安景遊」·「初十日自用安宿竹山路中值雪」·「十一日宿竹山次軒韻」·「十二日宿板橋院路見載筆者」·「月廿八日拜辭宿新院到漢江有感」.

71) 『금계집(외집)』 권5, 시, 「月廿八日拜辭宿新院」·「廿九日宿陽智雨中路潭」·「宿山驛聞迎人角聲獻云」; 『금계집(내집)』 권2, 시, 「三月初一日宿無極驛連雨」·「二日

단신으로 단양에 부임한⁷²⁾ 황준량은 즉시 경내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10일에 도착하여 9일 동안 다녔다’는 표현이 그것이다.⁷³⁾ 민생을 다룬 장시 ‘德峴紀行憩曹生亭’, 즉, ‘덕고개를 지나는 길에 曹君의 정자에서 쉬다’라는 시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⁷⁴⁾

山炊間黃梁	산골이라 이따금 짓는 기장밥
勸客頻加飧	나그네에게 더 먹으라 자꾸 권하네
因言生事艱	살림살이 너무나 고생스러우니
一夫千徭煩	장정 혼자서 온갖 부역을 짊어진다네
未決樂土去	낙토 찾아 떠날 일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隣亡餘我存	이웃은 다 도망가고 우리만 남아 있다오
涸魚死已晚	마른 웅덩이의 붕어 신세이니 죽으면 그만인데
困瘁何足論	피곤과 고달픔을 어찌 말하라
峻斂過正供	가혹한 수취는 정도를 넘어섰고
空文不成恩	쓸모없는 공문서는 왕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네
愁冤僻谷裏	외진 골짜기에서 근심하고 원통해할 뿐이니
無路叫天關	대궐에 하소연할 길이 없다오
歎息涕交頤	탄식하며 흘린 눈물이 턱에 얼룩지는데
幅塞吐還吞	울분을 토하다가 다시 울음을 삼키네

시에서 보듯이 황준량은 농민들의 살림살이를 관찰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했다. 황준량이 지은 ‘丹陽陳弊疏’, 즉 단양의 피폐한 모습을 아뢴 상소문은 이러한 현장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부임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올린

到維新」·「德峴紀行憩曹生亭」.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에서는 이황이 지은 행장에 따라 정사년 가을, 즉 1557년 가을에 단양 군수로 부임했다고 잘못 이해해 왔다.

72) 가족과 함께 부임하지 않았던 사실은 「행장」에 「除挈家」라고 명시되었다. 『금계집(외집)』 권9, 부록, 「행장」, 2쪽 상. 이 부분은 국역본에서 잘못 번역했다.

73) 황준량은 9일간 행차한 사실을 잇구 두 군데서 직접 표현했다. ‘十日到官行九日’(『금계집(내집)』 권2, 시, 「丹丘南遊路上」), ‘十日江山九日行’(『금계집(내집)』 권2, 시, 「又」).

74) 『금계집(내집)』 권2, 시, 「德峴紀行憩曹生亭」. 이 시에 나타나는 ‘덕현’은 단양군 대강면 덕촌에서 올산 마을로 넘어가는 ‘덕고개’이다.

5천 자 남짓한 장문의 상소문은 『조선왕조실록』에도 대부분 수록될 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 글이다.

황준량은 직면한 단양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부역을 감당하기에 지친 民戶가 40호도 되지 않고, 등록된 경지가 300결에 미치지 못하며, 잡곡 뿐인 환곡이 4,000석이지만, 빌려주었다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절반인데 받아들일 근거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당시 단양은 경제적 토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던 셈이다. 황준량은 이렇듯 단양이 망가진 까닭을 ‘10년 이래 홍수와 가뭄이 더해지고 전염병까지 이어지고 부역 때문에 재물이 손상된 탓’이라고 진단했다.⁷⁵⁾ 자연 재해와 지나친 수탈 때문에 부역을 부담하는 良人層이 대거 이탈한 것이다.⁷⁶⁾

이렇듯 고을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황준량은 국왕의 특별한 恩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⁷⁷⁾ 수령의 역량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 위에 황준량은 단양의 목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상책은 앞으로 10년간의 부세를 일체 면제하자는 것으로서, 토지와 개인에게 매기던 일체의 부담을 면제시키자는 것이다. 중책은 단양군을 屬縣으로 만들어 큰 고을에 합치자는 것이다. 하책은 특히 폐단이 큰 10가지 항목을 뽑아 이를 완전히 없애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면제해 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못 되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⁷⁸⁾

황준량의 상소는 중앙 정계에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피폐한 단양군의 실정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절실하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상소가 논의된 지 열흘 만에 놀랍게도 10년간 일체의 부세를 면제시키자는 상책이 받아들여졌다. 이런 예는 조선 왕조 전체를 통틀어 그 예를 찾기 어렵다. 당시

75) 『금계집(내집)』 권4, 잡저, 「丹陽鄉校重創記」.

76) 김운곤, 「임진란 발발 직전의 지방군현 실태」, 『해암 유흥렬박사 화갑기념논총』, 197
1. 김운곤은 단양군의 상황이 전 조선의 일반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지나친 평가로 보인다.

77) 『금계집(외집)』 권7, 疏, 「丹陽陳弊疏」, 1쪽 상.

78) 『명종실록』 권22, 12년 5월 기미(7일), 61쪽 하~66쪽 하.

중앙에서는 다른 고을에서 이를 본받아 면제해 달라고 청해도 그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황준량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⁷⁹⁾ 그리고 대단한 문장이니 베껴 들여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건의가 대신으로부터 나왔다.⁸⁰⁾ 얼마 후에는 학문이 뛰어난 이들이 외방에 있으면 곤란하다는 논의와 함께 황준량을 奉禮院의 奉禮(정4품)로 불러들이자는 의견까지 있었다.⁸¹⁾

상소가 받아들여졌다는 기쁜 소식을 접한 단양의 분위기에 관하여 황준량은 이렇게 읊었다.⁸²⁾

九死民生水火間	홍수와 가뭄에 구사일생 살아난 백성들
汪恩如海欲酬難	바다 같은 넓은 은혜 갚기가 어려우리
風茅破屋方謀蓋	바람 날린 띠집은 지붕을 새로 이고
封棘荒田始闢閑	가시 덮인 거친 밭은 이제야 개간하네
鴻雁離群應集澤	무리 떠난 기러기 떼 연못에 모여드니
豺狼當道要驅山	길을 막던 이리떼들 산으로 몰아내야 하리
朋尊相慶看天日	술로 서로 축하하며 하늘의 해 바라보니
江上秋高野色斑	가을이라 강가에는 들판 빛이 누렇구나

이처럼 단양의 농민들은 왕조의 특별한 은전에 힘입어 재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단양에 아직도 남아있는 善政碑, 사후에 그의 문집인 『금계집』이 단양에서 간행되었던 것은 그 결과물이다.⁸³⁾ 부세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흩어진 농민들은 ‘무리 떠난 기러기 떼가 연못에 모여들 듯’이 돌아왔을 것이며, ‘길을 막던 이리떼들 산으로 몰아내듯이’ 수취 행정의 현장에서

79) 『명종실록』 권22, 12년 5월 기사(17일), 73쪽 상~하.
 80) 『명종실록』 권22, 12년 5월 임신(20일), 74쪽 상. 황준량의 문장에 관한 찬사 뒤에는 비슷한 시기에 올라간 吳山斗의 상소문이 줄렬하다는 평가가 덧붙여졌다.
 81) 『명종실록』 권25, 14년, 2월 경술(8일), 10쪽 하~11쪽 상.
 82) 『금계집(내집)』 권2, 시, 「丹山樂」.
 83) 선정비는 현재 단양 향교 안에 전한다. 『금계집』 내집은 단양 군수 孫汝誠이 주도하여 1566년경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종호, 「백운동 학풍을 이어 은혜를 베풀고 교육을 진흥한 목민관」(『금계집』해제), 『(국역)금계집』1,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2014.

부당한 수탈을 일삼던 자들도 크게 견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왕에 대한 충성심은 높아졌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이황도 반가움이 가득한 편지로 다음과 같이 치하하였다.

편지를 받고서 임금께서 피어린 정성을 칭찬하시어 큰 은혜의 보살핌을 얻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로부터 피폐한 것에서 멀쳐 일어날 뿐만 아니라 樂土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고을이 길이 공의 덕을 입게 되었으니, 어찌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대와 백성들에게 깊은 위로와 축하를 드립니다. 단양의 龜潭에 숨어 사는 李之蕃 같은 이도 분명히 쟁기 메고 바빠 달려올 것 같고, 비록 늙고 병든 저 같은 사람도 펄펄 뛰면서 단양의 들판에서 농사짓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⁸⁴⁾

이로써 황준량은 큰 명성을 얻고 갑자기 선치 수령, 즉 훌륭한 지방관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호전된 여건에 힘입어 학교를 일으키는 일에 나섰다. 향교를 이전한 일이 그것이다.

향교는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한 중심 기관이다. 그러나 단양 향교는 물가에 있어 수해를 입었고,⁸⁵⁾ 오랫동안 제대로 돌보지 않아 황폐한 상태였다. 황준량은 관아의 동쪽에서 터를 구하고 노는 인력을 동원하고 새로 개간한 경작지에서 거둔 곡식으로 비용을 충당하여 몇 달 만에 공사를 마쳤다. ‘노는 인력’과 ‘새로 개간한 경작지에서 거둔 곡식’이란 국가에 바치는 부세 부담이 면제되었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

새로 지은 향교의 상량문에서 황준량은 공자의 학문을 높이고 학문을 권하였다. 특기할 것은 단양 고을의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해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할 정체성을 강조했다. 李公老·禹玄寶(1333~1400) 등 단양 출신의 학자들을 언급하고, 외적을 섬멸한 공적으로 읍호가 승격한 사실, 趙世英·이황 등 훌륭한 업적을 남긴 지방관들이 남긴 자취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자연 재해

84)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舉(使至辱書)」.

85) 종래의 향교가 물가에 있어 경관이 좋았으나 수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황의 편지에 나타난다.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舉(近久未聞問)」.

와 잘못된 수취로 글 읽는 사람이 끊어질 지경이었는데, 국왕의 은혜로 10년간의 부세를 면제받게 되고 고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 향교를 옮기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특별히 향교의 서쪽 한 칸에 고려말 단양 출신의 학자인 禹卓(1263~1342)의 위패를 모셔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아울러 향교를 짓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논의 과정에 도움을 준 琴應賓, 공사감독을 맡은 張九齡, 서책을 마련해 준 淸洪道 관찰사 李澤, 1509~1573), 재물을 도와준 維新 현감 崔應龍(1514~1580) 등을 열거했다. 최응룡은 황준량과 함께 이황의 문하에 드나들던 동문이고, 금응민·장구령은 단양에 거주하던 이들이다.⁸⁶⁾

황준량은 상량문 말미에서 앞으로 농사꾼 중에서도 선비가 나오고 사람들이 예를 익힐 것을, 집집마다 顏子·孟子·程子·朱子의 학문을 본보기로 하여 성인이 나와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교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했다. 상량문에서 강조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은 황준량이 직접 지은 「記文」에서도 언급되었다.⁸⁷⁾

향교를 옮기고 우탁을 제향하도록 한 일은 유교적인 교화를 상징하는 조치였다. 단양 군수를 거친 적이 있는 이황은 자신이 일찍이 하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기뻐하고, 자신이 고향인 禮安에서 준비 중인 우탁을 위한 제향 시설을 황준량이 먼저 시작한 것에 관하여도 찬사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향교의 기문을 쓰는 일은 황준량에게 사양하였다.⁸⁸⁾

이런 가운데 황준량은 이황이 크게 주목한 『朱子書節要』를 간행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 일은 이미 신녕 현감 때 시작한 것이지만,⁸⁹⁾ 단양 군수

86) 『금계집(외집)』 권8, 잡저, 「赤城鄉校上梁文」. 성씨, 또는 자를 표기했기에 『금계집』을 참조하여 이름을 확인했다. 九齡이란 자를 썼던 장씨의 이름은 끝내 확인할 수 없었으며, 李 감사는 연대기에서 이택으로 확인했다. 『명종실록』 권24, 13년 2월 을사(27일).

87) 『금계집(내권)』 권4, 잡저, 「丹陽鄉校重創記」.

88)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舉(近久未聞問·向也獲奉問字·近書已修報·僕冒寒遠涉)」; 『퇴계속집』 권4, 서, 「答黃仲舉(蠻舍既移)」. 이황은 얼마 후 예안에 우탁을 모시는 易東書院을 창건하게 된다.

시절에 여유를 얻으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본다.⁹⁰⁾ 이황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유신 현감이던 최응룡과 함께 간행일에 나선 것이다.⁹¹⁾ 그는 단양에 와서 피폐한 고을을 일으키고 이 책의 인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만족하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⁹²⁾ 뒷날 성주 목사 시절에 『주자서절요』를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의 번거로운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폐한 고을을 일으키는 도중에도 자연을 즐기는 여흥은 있었다. 향교 이전을 마무리하던 해 가을, 황준량은 유신 현감 최응룡과 함께 林川郡의 試官으로 차출되었다.⁹³⁾ 이동 거리 800리가 넘었을 긴 여행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부여·공주·계룡산·영동·황간·회덕 등을 지나 보은을 찾았다.⁹⁴⁾ 隱逸로서 보은 현감으로 재직하던 成悌元(1506~1559)과 속리산에 은거하던 成運(1497~1579)을 찾아 가르침도 얻고 그들에 관한 자기 생각을 이황에게 전하며 의견을 구하였다.⁹⁵⁾

단양 군수에 부임한 지 3년째 되는 명종 14년(1559), 황준량은 이황·李之蕃(?~1575)과 평생 잊지 못할 구담의 추억을 얻게 되었다. 당시 대사성·공조참판 등의 관직을 거둬 사직하던 이황은 휴가를 얻어 귀향하는 중에 단양을 지났다. 단양의 구담에는 이황의 벗인 이지번이 은거하고 있었다. 황준량은 이지번과 함께 이황을 맞아 구담의 아름다운 봄 경치를 마음껏 즐

89)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舉(歸計未遂)」. 이 편지에서 이황은 ‘주서’를 베껴내려[寫出]한다고 했다.

90)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舉(佯至·節次接得·佯來奉簡·近久未聞問)」; 『퇴계속집』 권4, 서, 「答黃仲舉(自道谷傳示寄書)」·「與黃仲舉(秋深露冷·昨見四印)」.

91)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舉(佯至·近久未聞問·辱惠書)」; 『퇴계집』 권27, 서, 「答李大用(別後阻音)」.

92) 『금계집(내집)』 권4, 서, 「上退溪書(梅霖乍收)」.

93) 『퇴계집고증』 권5, 권5, 「盛什云云」. 최응룡도 함께 차출된 것에 관하여는 『금계집(내집)』 권2, 시, 「次大興蓮亭韻」.

94) 『금계집(내집)』 권2, 시, 「次公州軒韻 贈兩使君」·「次大興蓮亭韻」·「扶餘次軒韻泛舟白馬紀行」·「次古迹」·「次樓船白馬江韻」·「次懷德軒韻」·「見鷄龍山」·「訪龍淵瀑布」·「駕鶴樓與盧仁父次軒韻」·「遊冷泉亭」.

95) 『금계집(내권)』 권4, 서, 「上退溪書」; 권2, 시, 「見成處士運於大谷書堂 次贈成子敬韻」; 『퇴계집』 권2, 시, 「成上舍運隱居俗離山下」; 권19, 서, 「答黃仲舉(節次接得)」.

졌다. 벼슬을 떠나 학문의 길로 매진하려는 스승이 부러웠고, 당장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웠다. 다음은 이황이 떠난 후 황준량이 읊은 시다.⁹⁶⁾

愛靜退翁還故隱	고요함을 좋아하는 퇴계 선생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逃名龜老獨眠巖	이름 숨긴 구담 노인은 홀로 바위에서 잠을 이루네
多慙久乞丹砂俸	부끄러운 건, 단양 고을 봉급을 오래 청하며
未決焚魚匹馬南	벼슬 버리고 말을 몰아 남행하지 못한 것일세

그해 여름, 황준량은 단양 군수의 임기를 채우고 귀향했다.⁹⁷⁾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군민들은 황준량이 더 있게 해달라는 連任 운동을 했다고 한다.⁹⁸⁾ 황준량에게는 영광의 퇴임이었다.

그후 황준량은 예조정랑·병조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황처럼 벼슬을 버리고 학문에 몰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황으로부터 들려오는 도산으로 모여드는 젊은 선비들에 관한 소식들은 그를 자극했을 것이다.⁹⁹⁾ 도산서당을 짓는 스님에게는 가을에 자신이 돌아가 머물 鏞溪精舍를 지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¹⁰⁰⁾

황준량이 금계로 은퇴하려 하자 장인인 이문량은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황준량이 자신의 희망과 달리 벼슬길에서 물러서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리고 사위가 은퇴하려는 것은 번번이 벼슬을 버리고 학문하겠다고 낙향하는 이황에게 물들었기 때문이라면서 원망했다. 평생의 벗인 이문량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이황은 난감해 하면서도 황준량이 금계정사 터를

96) 『금계집(내집)』 권3, 시, 「次龜翁」. 이황도 그날의 즐거움을 편지에 담았다. 『퇴계집』 권19, 시, 「答黃仲舉(僕一出七閩月而歸)」.

97) 『행장』에는 ‘除挈家 三年而秩滿’이라고 하였다.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고 홀로 부임하는 경우, 임기는 900일, 즉 30개월이 된다. 『경국대전』 권1, 이전, 「外官職」. 따라서 여름에 임기만료가 되었을 것이다.

98)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舉(頃以俗節展墓)」.

99)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舉(僕冒寒遠涉)」·「與黃仲舉(陽月向關)」.

100) 『금계집(외집)』 권6, 시, 「次贈山人」.

마련한 것을 축하하고, 공부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보다 대단한 것이라고 했다.¹⁰¹⁾

V. 상급 수령으로서의 활동 - 성주 목사 시절 -

금계로 돌아간 지 1년 만인 명종 15년(1560) 가을, 황준량은 다시 벼슬길에 나서기로 했다. 젊은 시절, 잠시 훈도로 근무했던 곳이었고, 이현보가 걸군하여 善治 수령의 명성을 얻은 곳이기도 한 성주의 목사직에 제수된 것이다.¹⁰²⁾ 성주는 경상도에서 가장 큰 고을 중 하나로서, 속현도 셋이나 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행정 수요가 앞서 거쳤던 신녕이나 단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¹⁰³⁾ 현직 고위 관료로서 고을에 머무는 이들도 제법 있었다. 이른바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難治邑]’이었다.¹⁰⁴⁾

부임한 지 얼마 안 가 황준량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빠진 것을 알았다. 손님치레에 빼앗기는 시간이 많았고, 공부에 마음을 쏟기가 어려웠다. 이 무렵 황준량과 이황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그런 상황이 잘 드러난다.

저는 한번 나아가 벼슬아치가 되고 마침 일이 많은 고을에 왔습니다. 비록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성인의 가르침을 좇을 줄 아니 베풀 수 있는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조금 지나니 공

101) 『퇴계집』 권20, 서, 「答黃仲舉(辱報書·前日見書意)」.

102) 이현보는 1522년 10월에 성주목에 부임하여 1525년 4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재직했다. 『농암선생연보』 권1, 「연보」, 正德 16년 10월; 「연보」, 가정 4년 4월.

103) 이른 시기의 자료이긴 하지만 세종 때의 기록에 성주목은 1,479호나 되는 큰 고을이었고, 3개의 속현의 호까지 합치면 2,446호의 규모였다.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22쪽 상. 이에 비해 신녕현·단양군의 호수는 470호·235호였다.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19쪽 하; 권149, 「지리지」, 3쪽 하.

104) 구완회, 「조선 후기의 난치읍과 지방통치의 문제점」, 『역사와 경계』70, 2009. 고을의 규모가 크거나, 군사적 필요성 등 특별한 부담을 지닌 경우, 재지 세력이 강하거나 갈등하는 경우의 셋을 들었다. 이 시기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私 간의 손님들이 줄지어 모여듭니다. 분수에 따라 응접하지만, 도리어 쇠잔한 고을에 앉아 한가로이 휘파람 부는 때만 못합니다. 또한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어 온전히 힘을 들이지 못합니다. 공부할 마음이 까마득해지는 것이 날로 심하여 때로는 송구스러우니 어찌합니까?¹⁰⁵⁾

생각건대 공이 편하게 지낸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자질구레한 문서들을 끌어안게 되었으니 마음에 짜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책이 임금의 걱정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오로지 진심을 다하시고, 절대로 나 몰라라 하여 일을 팽개치면서 고상한 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을 백성의 복이 될 것입니다.¹⁰⁶⁾

성주 시절 황준량의 업적은 주로 학교 진흥과 관련한 것이다. 그곳에는 전임 목사인 盧慶麟(1516~1568)이 세운 迎鳳書院이 있었다. 영봉서원은 성주 출신인으로서 고려말에 활약한 문신인 李兆年(1269~1343)과 그의 손자 李仁復(1308~1374), 그리고 성주를 드나들며 학문 활동을 했던 성리학자 金宏弼(1454~1504)을 모시는 서원이었다. 그러나 건립 초기부터 位次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 문제는 결국 송사로 발전하여 영봉서원의 정상적인 정착을 위협하고 있었다.¹⁰⁷⁾ 심지어는 서원을 세우자는 말을 꺼낸 노경린을 비난하고, 서원을 처음 설립한 주세붕이 폐단의 실마리를 만들었다는 비난까지 나올 지경이 되었다.¹⁰⁸⁾

황준량은 영봉서원을 시작할 때부터 이황·노경린과 편지를 주고받았기에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위차 문제 외에도 노경린이 주세붕의 『죽계지』를 모방하여 편찬한 『迎鳳志』의 내용에 관하여 불만이 있었다. 서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소과 입격자로 정한 것이나 중국에 있는 서원들을 나열한 부분이나 藏書 목록, 學田 등의 자잘한 내용을 『영봉지』에 포함하는 것

105) 『금계집(외집)』 권7, 서, 「答退溪先生書(僧來)」.

106) 『퇴계집』 권20, 서, 「답황중거(人來惠書)」.

107) 정만조, 「퇴계 이황의 서원론」,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 1981.

108) 『퇴계집』 권25, 서, 「答鄭子中別紙(星山前牧盧仁甫)」.

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했다.¹⁰⁹⁾ 물론 가장 큰 문제점은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황준량은 재임 기간 동안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¹¹⁰⁾ 그러나 서원의 실질적인 운영, 특히 교육 내용에 깊숙이 개입했다. 서원에 모여든 원생들을 격려하고 『小學』·『近思錄』·『心經』을 공부한 뒤에 四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¹¹¹⁾ 자신보다 1년 앞서 訓導(정9품)로 부임한 吳健(1521~1574)과 함께 ‘朱子書’를 함께 읽으면서 학문하는 모범을 보여주었고,¹¹²⁾ 교육의 현장에는 오견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유생들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¹¹³⁾ 황준량 자신도 한 달에 한 번씩 서원에서 열리는 講會에 참석하였다.¹¹⁴⁾ 아울러, 이황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봉지』를 校勘하면서도 논란을 우려하여 공개는 미루었다.¹¹⁵⁾

그밖에 황준량은 고을 동편에 孔谷書堂을, 속현인 八莒에 鹿峯精舍를 지었다. 곳곳에 강학의 공간을 두려 한 것이다. 황준량은 새로운 배움터에 모여드는 선비들에게 글을 보내 이익을 추구하는 공부가 아니라 성리학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한다고 격려했다.¹¹⁶⁾ 이렇듯 새로운 교육 시설을 만든 조치에 관하여 이황은 ‘선비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지만 결국은 목사인 황준량

109) 『금계집(외집)』 권7, 서, 「答盧星山仁父論書院事書(蒼茫歲暮)». 여기서의 책 이름이 『迎鳳錄』으로 나온다.

110) 『금계집(내집)』 권4, 잡저, 「上退溪書(一臥周南)」.

111) 『금계집(내집)』 권4, 잡저, 「與迎鳳諸賢書」.

112) 『덕계집』 권8, 외집, 「제문」, 2쪽 하. 鄭述가 이 제문에서 언급한 ‘8권의 주자서’는 『주자서절요』로 보인다. 오견은 曷植(1501~1572)의 뛰어난 제자로서 뒤에는 이황의 문하에도 출입했다.

113) 『금계집(내집)』 권4, 잡저, 「與迎鳳諸賢書」. 당시 황준량이 영봉서원의 유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강(自強, 오견)의 강론이 조리가 있어 믿고 따르는 자가 많으니 반드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114) 『금계집(내집)』 권4, 잡저, 「上退溪書(溔霖彌月)」.

115) 『퇴계집』 권20, 서, 「與黃仲舉(月初)」. 영봉서원의 건립에 관하여는 김소은, 「16세기 성주지역 사족의 교유와 서원 건립계획」(『정신문화연구』26, 2003)을, 『영봉지』에 관하여는 이수환, 「성주 영봉서원 연구」(『역사교육논집』54, 2015)를 참조.

116) 『금계집(내집)』 권4, 잡저, 「與鹿峯精舍諸生書」.

과 훈도인 오건이 애쓴 덕택'이라면서 치하였다.¹¹⁷⁾

황준량의 서원을 중심으로 한 興學 활동은 당시 사림 계열의 노선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종래 그들이 주장했던 司倉制, 鄉射禮·鄉飲禮·鄉約 보급 운동 등이 훈구세력들을 자극하고 결국 사회를 불러왔던 것을 반성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서 서원을 통한 새로운 향촌 질서를 추구해나갔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¹¹⁸⁾

이와 관련하여 황준량이 성주 향교를 중수하는 일에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황이 보낸 편지는 당시 흥학에 관한 지방관의 역할이 어떤 맥락에서 주목되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지난번에 李大用(이문량)에게서 성주 향교가 기울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차 손을 본다 고 하는데,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모두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또한, 흥 감사[홍담]가 노 목사[노경린]를 책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온힘을 여기에만 쏟고 서원의 일을 지금의 여론에 따라 느슨하게 한다면, 저들의 의견과 무엇이 다르게 되겠습니까?¹¹⁹⁾

당시 경상도 관찰사 洪燾은 대표적인 훈구 계열의 관료이다. 결국, 훈구 계열은 사림 계열이 수령직에 있으면서 펼치는 서원 교육 운동을 의심하고 있으니, 향교를 수선하는 것이 그러한 의심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官學인 향교를 통한 학교 진흥을 원했던 훈척 계열과 서원 교육을 중시했던 사림 계열의 노선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관학적 아카데미즘의 전통을 거부했던 이황으로 대표되는 사림 계열은 이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서원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다.¹²⁰⁾

한편, 황준량은 이황이 편찬한 『주자서절요』를 인쇄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단양 시절에 작업이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오류를 바로잡

117) 『퇴계집』 권20, 서, 「答黃仲學(滉前月在陶山)」.

118) 이태진, 『사림과 서원』, 『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1978.

119) 『퇴계집』 권20, 서, 「答黃仲學(滉前月在陶山)」.

120) 이우성, 「퇴계선생과 서원창설운동」, 『퇴계학보』19, 1978, 204쪽.

는 과정이 어려웠다. 이황은 인쇄 비용이 만만치 않고, 혹시라도 성주목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며 조바심을 내기도 했다.¹²¹⁾ 결국, 관찰사 홍담의 지원을 받고 臨臯書院에서 활자를 빌리고, 金就文(1509~1570)·李楨(1512~1571)·李叔樾(1519~1592) 등의 도움에 힘입어 명종 15년(1560) 여름에 15책 8권의 巨帙을 출간할 수 있었다.¹²²⁾ 관찰사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지만, 성주목의 부담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사업이었다.

성주에서 황준량이 보여준 학교 진흥 사업은 얼핏 보아도 대단했다. 강학의 장소를 마련하고, 자신도 학문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가 세우거나 간여한 교육 시설들은 19세기까지도 지역 사회에서 교육 기능, 또는 일정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며,¹²³⁾ 그가 출판한 『주자서절요』는 한국 성리학의 질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¹²⁴⁾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비용 부담이 따르는 것이었다. 아무리 성주목이 풍성한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층을 위하여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다수의 농민층 처지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황준량이 몰려드는 지인, 선비들의 뒤치다꺼리 때문에 받았던 비판은 이런 부분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황의 편지와 황준량의 답장에 담긴 걱정과 해명을 통하여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근자에 筠翁(이문량) 편에 ‘어진 다스림이 베풀어지지만 小民들이 고생한다는 탄식이 없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민들이 고생한다는 비판은 대부분 친구와 어울리며 어지러워진 까닭입니다. 이 일은 제가 처음에 일찌감치 걱정하며 경계했던 것인데 조심하지 않으시더니 지금 어떠하십니까?

121) 『퇴계집』 권20, 서, 「與黃仲學(月初)」.

122) 『퇴계집』 권20, 서, 「答黃仲學(隔月阻音)」·「與黃仲學(月初)」; 『금계집(내집)』 권4, 잡문, 「晦菴書節要跋」. 최채기, 『『주자서절요』 초기 판본에 나타난 퇴계 주석의 증보 양상』, 『고전번역연구』5, 한국고전번역학회, 2014.

123) 칠곡의 선비로서 영조 때 활동했던 李東汲(1738~1811), 독립운동가인 金昌淑(1879~1962)이 공곡서당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心山遺稿』 권3, 서, 「孔谷書堂移建契帖序」.

124) 김종석, 「금계 황준량의 사상과 퇴계학의 계승양상」, 『퇴계학보』136, 2014, 148쪽.

또한, 신녕·단양에서 다스릴 때는 이런 비판이 없었는데 지금 생긴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곳에 있으면서도 멀리까지 은택을 미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남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도 막지 않아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금 만일 고칠 수 있으면 즉각 고치시고, 거두어들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錦溪로 돌아가 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¹²⁵⁾

접대 때문에 어지럽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간곡한 훈계를 받았으니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만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는 것이니 종전의 작은 고을의 조출한 것에 비길 것은 아닙니다. ... 고을이 분주한 길목에 있어서 왕래가 본래 번잡하고, 친한 사이에 간혹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문을 닫아걸 수 없어서 끌려나가곤 합니다. 단지 분수에 따라 응접하여 賓旅의 의리를 잊지 않는데 조금 부응하는 것일 뿐이니 어찌 사사로운 인연을 따라 공금을 소모하기까지 하겠습니까? ... 마땅히 엄한 스승의 훈계와 筠舅(이문량)의 걱정을 항상 경계 삼겠습니다. 혹시라도 허물이 있거든 더욱 꾸짖어 주십시오.¹²⁶⁾

이런 편지 왕래는 황준량이 성주에 부임한 지 1년 반 뒤, 『주자서절요』 간행을 마무리한 뒤에 있었다. 끊임없이 드나드는 지인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가운데 민원이 생겼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황은 『주자서절요』의 인쇄 작업이 혹 ‘관가의 법도[官方]’를 어지럽히지나 않을까 걱정하곤 했다.¹²⁷⁾ 여기서 물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던 수령들에 의해 이뤄지던 출판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민폐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25) 『퇴계집』 권20, 서, 「答黃仲學(忽承人日所寄書)」(임오).

126) 『금계집(외집)』 권7, 서, 「答退溪先生書(伏承上元復書)」.

127) 『퇴계집』 권20, 서, 「與黃仲學(月初)」.

VI. ‘善治 수령’의 含意 - 맺음말에 대신하여 -

지금까지 황준량이 예비 관료였던 시절부터 그의 마지막 관력인 성주 목사 때까지를 검토했다. 그는 한동안 중앙 정계에서 배제되었던 사림과가 다시 등장하던 전환의 시기에 문과에 급제한 뒤 성주 훈도를 역임하고, 성균관의 하급 관료로 3년 넘게 근무했다. 잠시 상주 교수로 나갔다가 다시 성균관으로 복귀하였다. 공조·병조좌랑을 거치고 승문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를 전후하여 경상도 감군어사·추생어사로 민정을 살필 기회를 가졌고, 복귀하여 예조좌랑을 거쳤다. 이처럼 황준량의 관료 생활 중 초기의 약 10년 간은 홍문록에 올라 승승장구하는 이들과 달리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황준량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 주인공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관료 사회에서 성장했다. 이를테면 본래 공신 계열이기는 하나 성리학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한 서원 교육 운동에 나섰던 주세붕,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사림 계열의 지도자로 등장한 이황과 밀접히 교류했다. 이러한 교류는 그의 처조부이자 정파를 초월하여 존경받던 원로 재상 이현보를 매개로 이루어졌으며, 교류의 상당 부분은 고향인 풍기와 처향인 예안의 汾川에서 이뤄졌다. 풍기는 군수 주세붕이 처음으로 서원을 세운 곳이고, 이황이 풍기 군수로 재직하면서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으로 賜額받을 수 있도록 한 곳이며, 분천은 이황이 머물던 퇴계와 10리 안팎인 가까운 곳이었다.

언관인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가 곧장 교체된 후, 황준량은 결군하여 신녕 현감으로 나아갔다. 수령직은 결군이라는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중앙 관직보다 경제적 기반이 있었고, 적극적인 治民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명예를 얻기도 하고, 오명을 얻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자리였다.

황준량은 신녕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뒤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단양군·성주목을 차례로 거치면서 성공적인 수령, 즉 선치 수령이라는 이름을 남겼다. 학교를 일으키고 진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단양 군수 때는 국왕에게 고을의 폐단을 상소하여 10년간의 부역 면제라는 놀랄 만한 성

과를 얻어냈고, 성주 목사 때는 『주자서절요』라는 책을 편찬하여 성리학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황준량은 어떻게 이렇듯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특히 단양 군수로서 그가 얻게 된 명성의 배경은 무엇일까?

황준량은 벼슬아치가 지녀야 할 태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청렴의 원칙을 지키고[持己以廉],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며[臨民以仁], 항상 공의 가치를 마음에 두고[存心以公], 부지런히 일할 것[莅事以勤]’이라는 네 가지 원칙, 즉 ‘居官四箴’을 남긴 인물이다.¹²⁸⁾ 이는 황준량이 사익 추구를 배격하고 公道를 추구하던 사림파의 주장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 선치 수령이 될 수는 없었다. 별다른 보조 인력 없이 단신으로 부임하는 수령에게 윤리적 자질은 필수적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수령으로 성공하기 위하여는 업무 현장에서의 행정 능력이 필수적이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면 아전들에게 휘둘리기 때문이었다. 조선 왕조는 관료들에게 현장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승진 과정에 ‘사송·전곡’ 이문 경력을 거치게 하는 등 비롯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황준량도 양현고·형조·호조 등의 실무 관료를 거치면서 유능한 관료가 지녀야 할 실무 능력을 길렀다. 두 차례의 어사 경험을 통하여 사송을 감당하는 능력도 보완했다.

그러나 아무리 황준량의 자질이 뛰어나고 행정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국왕의 결단이 있었기에 단양에서의 실적이 가능했다. 또한 황준량이 상소문을 올릴 수 있는 문신 수령이 아니고, 뛰어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명종의 허락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왕의 허락이 일단 떨어지자 그는 이미 성공한 목민관, 그것도 한가한 수령이 될 수 있었다. 이황의 편지에 나오는 우스갯말은 이를 반영한다.

128) 『금계집(외집)』 권8, 잡저, 「居官四箴」.

산간 고을에서 고을 관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세금 거두는 일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제 이미 그것을 면제받았으니 공은 고을에서 신선들이 먹는다는 黃精이나 부지런히 잡수시면 신선이 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황정을 먹지는 않았지만 그대가 신선이 되어 올라갈 때 허겁지겁 그대의 옷소매를 붙들고 같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설마 물리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하하하.¹²⁹⁾

수령의 군현 통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취 행정이다. 그것은 살림살이가 빠듯한 농민들로부터 일정한 양의 부세를 거두는 일이었고, 수취의 기준을 놓고 상급 기관과 밀고 당기는 지루한 협상의 과정이기도 했다. 수취의 현장에서 아전을 단속해야 했으며, 수취 성적이 좋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황준량은 단양군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런 대부분의 업무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단양진폐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그는 훌륭한 목민관의 상징이 되었다. 농민의 처지에서 볼 때, 황준량이 오면서 상황이 급반전하여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일 세금 재촉 하나만이라도 예전처럼 했다면, 결국 봄에는 은택이 두텁더니 가을에 추상같이 야박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후대 사람의 평가는 설득력이 있다.¹³⁰⁾ 향교 이전이라든가 서적 간행을 할 수 있었던 동력도 기본적으로 수취 업무가 헐거워진 덕택이었다. 그런 점에서 농민들을 부세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킨 황준량의 행적은 강한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사회의 오랜 통념처럼 ‘백성의苦歇이 수령에 달려 있다.’라는 식의 人治主義의 전통도 재생산될 수 있었다.¹³¹⁾

실제로 단양군이 망가진 원인에 관하여 실록의 편지는 구조적인 문제보다 수령 개인의 일탈 때문이라고 보았다. ‘단양군은 본래부터 버려진 곳이 아니었는데, 여러 차례 늙은 도적의 손을 거치면서’ 망가졌다는 것이다.¹³²⁾ 여기

129) 『퇴계집』 권19, 서, 「答黃仲學(使至辱書)」.

130) 『廣瀨文集』 권4, 서, 「與金龜窩」.

131) 구완회, 「수령에 대한 顯彰 의식의 전개와 19세기 말의 ‘萬人傘」, 『경북사학』21, 1998.

서 ‘늙은 도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황준량 이전 10년간 부임했던 이는 이황·崔燾·申潤輔이다.¹³³⁾ 이황은 부임 당시 48세였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그를 제외한다면 남은 두 사람이 ‘늙은 도적’으로 평가된 셈이다.¹³⁴⁾

결국, 선치 수령에 관한 관심은 ‘제도보다는 사람’이라는 당대의 통념에서 온 것이었다. 당시의 일반적인 관점은 누가 수령이냐에 따라 한 고을이 망가질 수 있고, 복구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으며,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런 사례들은 체제가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체제의 구조적인 전환이 아니라 좋은 인재를 뽑아 쓰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랜 믿음을 강화하는 훌륭한 근거였다. 그런 면에서 황준량은 오랫동안 선정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희망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7년 10월 2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132) 『명종실록』 권22, 12년 5월 기미(7일), 66쪽 하.

133) 『한국지리지총서 읍지』(아세아문화사 영인) 8, 단양읍지, 「先生案」.

134) 최권은 1539년에 급제할 당시에 이미 당상관인 장예원 판결사였고, 신윤보는 부임 당시 70세가 넘었다고 한다. 신윤보는 해주 판관 시절에 탐오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다. 『중종실록』 권92, 35년 1월 입자(1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금계선생변무록(錦溪先生辨誣錄)』
『금계집(錦溪集)』(강성위·김상환 역, 『금계집』, 안동대 퇴계학연구소·한국학진흥원, 2014)
『농암선생연보(壘巖先生年譜)』
『농암집(壘巖集)』
『덕계집(德溪集)』
『명재유고(明齋遺稿)』
『무릉잡고(武陵雜稿)』
『무릉잡고부록(武陵雜稿附錄)』
『사마방목(司馬榜目)』
『소수서원등록(紹修書院謄錄)』
『심산유고(心山遺稿)』
『영봉지(迎鳳志)』
『유서필지(儒胥必知)』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죽계지(竹溪志)』,
『진제장취식수(賑濟場就食數)』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퇴계선생문집고증(退溪先生文集放證)』
- 강구울, 「금계 황준량의 삶과 문학」, 『世居七百年-영주의 평해황씨 사람들-』, 소수박물관, 2012.
- 구원회, 「수령에 대한 顯彰 의식의 전개와 19세기 말의 ‘萬人傘」, 『경북사학』 21, 경북사학회, 1998.
- 구원회, 「조선후기의 難治邑과 지방통치의 문제점」, 『역사와 경계』 70, 부산경남사학회, 2009.

- 구원희, 「조선전기의 ‘歸養’과 ‘乞郡」, 『이수건교수정년기념한국중세사논총』, 2000.
- 권석창, 「황준량의 옥양서원 黜享과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배경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4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길진숙, 「주세붕의 『竹溪志』 편찬과 시가관, 『민족문화사연구』11, 민족문화사연구소, 1997.
- 김기주, 「초기 사림과의 좌절과 퇴계학, 『양명학』23, 한국양명학회, 2009.
- 김소은, 「16세기 성주지역 사족의 교유와 서원 건립계획, 『정신문화연구』26, 2003.
- 김시향, 「금계 황준량 선생과 풍기지역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30,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1.
- 김윤곤, 「임진란 발발 직전의 지방군현 실태, 『혜암 유홍렬박사 화갑기념논총』, 1971.
- 김종석, 「금계 황준량의 사상과 퇴계학의 계승양상, 『퇴계학보』136, 퇴계학연구원, 2014.
- 유응순,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창설과 국문시가에 대한 방향 모색, 『어문논집』35, 민족어문학회, 1996.
- 윤천근, 「황준량의 역사의식, 『퇴계학』2,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1990.
- 윤희면, 「백운동서원의 설립과 풍기사림, 『진단학보』49, 진단학회, 1980.
- 이수환, 「성주 영봉서원 연구, 『역사교육논집』54, 역사교육학회, 2015.
- 이우성, 「퇴계선생과 서원창설운동, 『퇴계학보』19, 1978,
- 이종호, 「백운동 학풍을 이어 은혜를 베풀고 교육을 진흥한 목민관(『금계집』해제), 『(국역)금계집』1,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2014.
- 이태진, 「사림과 서원, 『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1978.
- 정만조, 「퇴계 이황의 서원론,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 1981.
- 정만조, 「조선서원의 성립과정, 『한국사론』8, 1980.
- 정시열, 「금계 황준량의 산문 시담, 『한민족문화연구』55, 한민족문화학회, 2016.
- 최석기, 「황준량의 지이산기행시에 대하여, 『동방한문학』47, 동방한학회, 2011.
- 최재남, 「금계 황준량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5, 한국한시학회,

2000.

최채기, 『『주자서절요』 초기 판본에 나타난 퇴계 주석의 증보 양상』, 『고전번역 연구』5, 한국고전번역학회, 2014.

Hwang Jun-ryang's Official Career and Service as Local Governor

Ku, Wan-hoe

Hwang Jun-ryang(黃俊良) was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middle Choseon dynasty. This article focuses on his official career and his service as a local governor. His life is restored in this article by examining Geumgyejip(錦溪集), a collection of his literary works, besides letters in Toegyujip(退溪集). The way of his wise government is also scrutinized in the article.

Pass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Hwang Jun-ryang began his official career working at various low-ranking official positions in Seonggyungwan(成均館) at the time sarim faction reentered the political world. In his hometown, Punggi(豐基), Ju Se-bung(周世鵬) established the first Seowon(書院), a private school, and Yi Hwang(李滉) developed Seowon during his service as a local governor, gunsu. As Hwang Jun-ryang was a grandson-in-law of Yi Hyeon-ro(李賢老), who was revered by all the factions, he could keep company with Ju Se-bung or Yi Hwang.

He filled various local governor positions, such as Shinnyeong hyeongam, Danyang gunsu, Seongju moksa. During the service, he led relief efforts for the starved, solved his former governor's liabilities, and developed education sincerely. Especially, serving as a local

governor of Danyang, he proposed tax cut to the king and successfully provided the people with the tax exemption benefit for ten years. This gave him the honorable name, seonchi suryeong(善治守令), that is, a wise government local governor. He exerted every effort in education in Sewon(書院) which was sarim faction's great concern and as Seongju moksa, he finished compiling Jujaseojeolyo(朱子書節要); The Abbreviated Essence of Master Zhu Xi's Letters which Yi Hwang had begun to compile.

It was a great achievement for him to get the tax exemption from the king as Danyang gunsu. Thanks to the tax cut the lives of people in Danyang improved. His fame as a wise governor, however, was not acquired because of his administration process but because of the king's permission for the exemption. At that time as the local governor's administrative work was mostly concerned with collecting products, he just got the fame while leading a leisurely life in Danyang.

After all, his fame as a wise governor was made in the social atmosphere of governing by a person. At that time they believed that things could be completely changed not by the system but by the governor's moral virtue and ability. That's why Hwang Jun-ryang was remembered as a symbol of wise governor by the people who looked forward to the beneficent government.

key words : Hwang Jun-ryang, Local Governor, Geumgyejip, sarim faction, Jujaseojeolyo, wise governor

